



최다빈, 김연아처럼...

쇼트프로그램 '파파 캔 유 히어 미' 결정
2004년~2006년 김연아가 사용한 음악
29~30일 평창올림픽 대표 선발전 첫 선

최다빈
2006년 3월 김연아(27)는 한국 피겨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피겨퀸' 대관의 서막을 알렸다. 이제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최다빈(17·수리고)은 12년 전 '피겨퀸'이 사용했던 쇼트프로그램 음악을 앞세워 김연아의 뒤를 이어 올림픽 포 다음에 오를 준비에 나선다.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최다빈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

2017-2018 시즌에 최다빈이 사용할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음악을 공개했다.
최다빈은 영화 엔틀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인 애절한 선율의 '파파 캔 유 히어 미'를 쇼트프로그램 음악으로 골랐고, 프리스케이팅은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OST를 사용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것은 쇼트프로그램 음악인 '파파 캔 유 히어 미'다.
최다빈의 대선배이자 같은 소속사인

김연아가 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 데뷔할 때 사용했던 쇼트프로그램 음악이다.
2004-2005 시즌 ISU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데뷔전을 치른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 파파 캔 유 히어 미와 프리스케이팅 '눈보라'를 앞세워 두 차례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모두 은메달을 딸다.
김연아는 2005-2006시즌을 맞아 쇼트프로그램인 '파파 캔 유 히어 미'를 그대로 사용하고,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을

'록산느의 탱고'로 바꿔 주니어 그랑프리 두 차례 우승,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까지 차지했다.
대선배의 좋은 추억이 남겨진 음악을 최다빈이 새롭게 해석해 평창 올림픽 무대를 준비하게 됐다.
안무는 일본 미야모토 겐지가 맡았다. 미야모토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 동메달리스트인 일본의 다카하시 다이ске의 쇼트프로그램 안무를 맡

은 바 있다.
최다빈은 "중요한 시즌이라 프로그램 을 고르는 데 고민이 많았는데, 쇼트는 애절한 반면 프리는 밝은 분위기, 슬픔, 웅장함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다빈은 오는 29~30일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KB금융 피겨스케이팅 코리아 챌린지 겸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표 1차 선발전에서 올림픽 시즌의 새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다.

한편, '피겨 만년니' 박소연(단국대)은 새 시즌을 맞아 쇼트프로그램은 '블랙스완'을 골랐고, 프리스케이팅은 지난 시즌에 사용한 '아랑훼즈'를 다시 쓰기로 했다.
남자 싱글의 이준형(단국대)은 영화 '찰리 채플린'의 OST에 가사를 붙인 '이타널 리'를 쇼트프로그램으로, 퀸의 '보헤미안 랍소디'를 프리스케이팅 음악으로 골랐다. 또 김진서(한국체대)는 '니드 유 나우'와 '넬라 판타지아'를 각각 선택했다. /연합뉴스

KIA 흥행 열기 '짹통 더위' 저리 가라



전반기 홈 관중 8차례 매진 등 59만7천명
LG·두산 이어 전체 3위... '100만' 가시화
오늘부터 홈경기 '핫 서머페스티벌' 등 행사

후반기 첫 주말을 맞는 챔피언스필드도 흥겹다.
고척 원정으로 후반기 스타트를 끊은 KIA 타이거즈는 21일부터 안방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홈 3연전을 치른다. KIA는 후반기 첫 주말 경기를 통해 '100만 관중' 목표에 불을 지핀다.
1위 팀 KIA는 올 시즌 흥행의 팀이기도 하다.
KIA는 전반기 42경기에 59만7594명(평균관중 1만4228명)의 관중을 불러들이며 '잡실한 자봉 두 가족'인 LG(68만7175명)와 두산(64만4631명)에 이어 최다 관중 3위 자리에 올랐다. 관중 증가율(39%)로는 10개 구단 중 1위다. 전반기에만 8경기에 2만5000석이 가득 차면서 8차례 매진이 기록됐다.
이 기세라면 팀 최다였던 2016년 77만 3499명을 넘어 올 시즌 목표 관중으로 내세운 78만1200명은 가볍게 넘을 전망이다. 산술적으로는 사상 첫 100만 관중까지 노려볼 수 있다.
원정길에서도 KIA의 티켓 파워가 막강하다.
지난 4월 22일 LG 원정 경기에서 잠실

구장의 시즌 첫 매진(2만5000명)에 기여한 KIA는 고척 돛 첫 매진 경기의 주인공도 됐다. 5월 3일 넥센 원정경기에서 1만7000명을 불러들이는 등 이를 연속 만원사례를 장식했다.
5월 14일 SK원정 경기의 관중석(2만 5000석)은 가득 채운 KIA는 '막내' kt의 역대 최다관중 기록에도 함께 했다.
KIA가 kt 위즈 파크를 찾은 지난 8월 2만2000석이 모두 팔려나가면서 시즌 첫 매진이 기록됐다. 올 시즌 증축과 2000석이 늘어난 만큼 2만2000명은 kt 장단 후 최다 관중 기록이다.
후반기에도 흥행 바람은 계속되고 있다. 18일 KIA와 넥센의 경기야 열린 고척돛에 1만5947명이 찾은 데 이어 19일에는 1만7000명이 입장했다. 평일에도 1만5000석 이상을 채우며 KIA는 티켓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짹통 더위'도 KIA의 흥행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중이 연일 폭염 경보가 발효되고 있지만 팬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후반기 첫 주말 3연전을 기다리고 있다.
22일 경기의 예매표가 이미 동이 났고,

21·23일에 예매표도 1만5000석 이상을 넘겼다.
더위를 잊게 하는 KIA의 시원한 1위 행보가 흥행의 원동력. 여기에 구단도 여름 나기를 위한 이벤트로 100만 관중 돌파에 힘을 보탠다.
KIA는 23일 2009년 한국시리즈 우승 당시 입었던 챔피언스 저지를 입고 뛰는 '올드 유니폼 데이'를 연다.
'고 투게더 데이(GO TOGETHER DAY)'로

불리는 이번 행사는 캐치프레이즈인 '동행'(GO Together)과 2009년 한국시리즈 우승 영광을 재현한다는 선수단의 의지를 담은 올드 유니폼 데이이다.
이날 2009년 당시를 회상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열린다. 시구는 KIA의 열혈 팬인 배우 이문식 씨가 한다. 시타 자로는 이문식 씨의 두 아들이 나선다. 또 이날 애국가에는 가수 KCM이 부른다.
25일부터는 챔피언스필드 여름을 상징하는 물놀이장이 외야에 등장한다.
KIA는 25일부터 8월 13일 LG전까지 10경기 동안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고등학교·대학생에게 입장료 할인을 해주는 '2017 핫 서머 페스티벌'을 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7일 챔스필드 투어 참가자 선착순 모집

KIA 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투어' 제7기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투어 프로그램은 27일(목) SK전역에 맞춰 진행되며 그라운드(볼펜·더그아웃) 및 라커룸(원정팀) 체험, 선수·팬 미팅, 실내연습장 및 웨이트 트레이닝실 견학, 선수단 훈련 관전, 경기 관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투어 참가자들은 경기장 및 선수단 시설 곳곳을 둘러본 뒤 3루측 K7석에 앉아 경기를 관람하게 된다. 참가비는 3만원으로

사인볼 등 다양한 기념품도 주어진다.
이번 투어 참가자 모집은 21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http://www.ticketlink.co.kr/sports/baseball/event/45)를 통해 진행되며, 선착순 50명이다. (문의 마케팅팀 070-768-8090)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야구(baseball)'와 '문화(culture)'를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베이스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 대표팀 전임 감독 24일 발표

선동열·류중일·조범현 등 물망

내년 아시안게임과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전임 감독이 24일 발표된다.
20일 야구계에 따르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첫 야구대표팀 전임 감독을 다음 주 초인 24일께 선임할 예정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야구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각종 국제대회 중 올림픽, 아시안 게임, 프리미어12의 경우 KBO 소속 지도자와 선수들을 선발해 파견하는 현실을 고려해 협회와 KBO가 업무를 분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팀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과 관리(파견 주체 등)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계속 보유되 KBO가 내부 '국가대표 운영규정'에 따라 대표팀을 선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협회가 실질적으로 KBO에 대표팀 감독 선임과 선수 선발 권한을 위임했다는 내용이다.
KBO는 안정적인 대표팀 운영과 효율적인 선수 선발·관리를 위해 1998년 '야구 드림팀'이 결성된 이래 처음으로 전임 감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KBO는 재임 기간 프로그램으로 옮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KBO의 한 관계자는 "그간 프로에서 성적을 내고 국제대회에서 경험을 쌓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압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시(WBC)와 프리미어 12에서 코치로 활동한 선동열 전 KIA 감독, 류중일 전 삼성 감독,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조범현 전 kt 감독, 대표팀 전력 분석을 이끈 김진진 롯데 감독, 한대화 전 한화 감독 등이 자천타천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다.
새로 선임될 대표팀 감독은 당장 오는 11월 16~19일 일본 도쿄돛에서 열리는 한국·일본·대만 3개국의 '아시아 프로 야구 챔피언십 2017'에서 데뷔한다.
이 대회는 젊은 선수들에게 국가대항 전 출전 기회와 국가대표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각국 유망주를 발굴하는 취지로 올해 출범해 앞으로 4년마다 열린다. 대표 선수 자격을 24세 이하(2017 대회 기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프로 입단 3년 차 이하로 제한하되 연령을 초월해 와일드카드 3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게 했다. 또 전임 감독은 내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9년 프리미어 12,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약 4년간 대표팀을 지휘한다. /연합뉴스



똑같이
19일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17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여자 팀 예선 경기 중에 코스타리카 팀이 경기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지만·레프스나이더 양키스서 방출 위기

최지만(26·뉴욕 양키스·사진)이 '핀스 트라이프 유니폼'을 벗을 처지에 놓였다.
양키스 구단은 20일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 필드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전을 앞두고 최지만과 내야수 록 레프스나이더(한국명 김정태), 좌완 체이슨 슈리브를 방출 대기 조처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3대4 '블록버스터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내야수 토드 프레이저, 우완 볼펜 투수 토미 케인리, 데이비드 로버트슨을 양키스 40인 로스터에 새롭게 포함하기 위한 조처다.
특히 지난해 홈런 40개를 때린 1루수 프레이저의 영입은 최지만에게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서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최지만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양키스와 마이니리거 계약 을 맺었다.
인상적인 타격을 보여준 최지만은 양키스 1루수의 부진을 틈타 지난 5일 빅리그에 승격에 성공했다.
이후 첫 2경기에서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강한 인상을 남긴 최지만은 6경기에서 타율 0.267(15타수 4안타), 2홈런, 5타점, 2볼넷, OPS(출루율+장타율) 1.067로 활약했다.
한국계 입양아 레프스나이더도 운영의 장난처럼 최지만과 같은 날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됐다. 다양한 수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레프스나이더는 올해 20경기에서 타율 0.135(37타수 5안타)에 그쳤다.
/연합뉴스